

numbers 제 102호



주요 내용

2021.07.02

- 이번 주 주제 : [코로나 이후 크리스천 청소년의 신앙생활 변화 2]
 - 크리스천 청소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향자,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하락, '아버지' 상승!
-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 45%
 - 한국,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 시간이 긴 나라!
 - 미국 목회자, 목사 성 범죄 시 '목회직 영구 정지' 해야 한다 74%
- 칼럼 - 줌(Zoom) 심방의 기적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크리스천 청소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향자,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하락, '아버지' 상승!

최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에 가보면, 대부분 다음세대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작년 말 목회자 조사에서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다음세대 교육 문제'가 1위로 꼽혔다. 그만큼 목회자들 사이에서 다음세대 교육이 큰 어려움이 된 것 같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청소년들의 조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생활 영향자로 어머니>목회자>아버지 순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머니>아버지>목회자 순으로 아버지가 목회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학생들이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전후로 유튜브에 빠져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발견하게 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102호는 지난주에 이어 크리스천 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에서 신앙생활, 교회 중고등부 생활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이 조사는 안산제일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2021년 4월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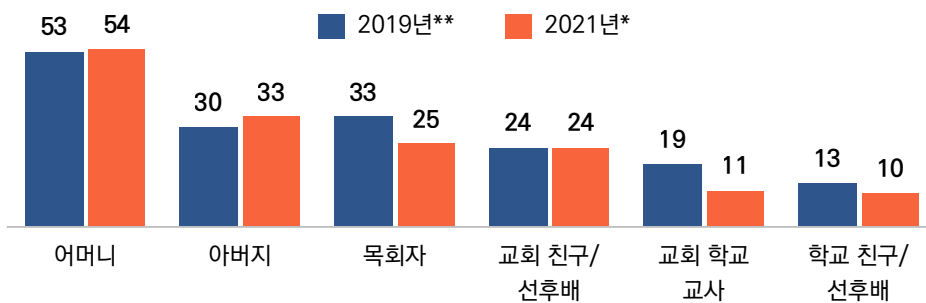
1



크리스천 청소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영향자,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하락, ‘아버지’ 상승!

- 크리스천 청소년(교회 출석 중고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본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어머니가 54%로 압도적으로 1위로 응답했다.
- 이번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9년 조사 때는 2위가 ‘목회자’, 3위가 ‘아버지’였는데, 2021년에는 2,3위 순위가 역전되어 ‘아버지’가 2위, ‘목회자’가 3위였으며, 교회 학교 교사는 2년 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생활 영향자(1+2 순위, 2019년 VS 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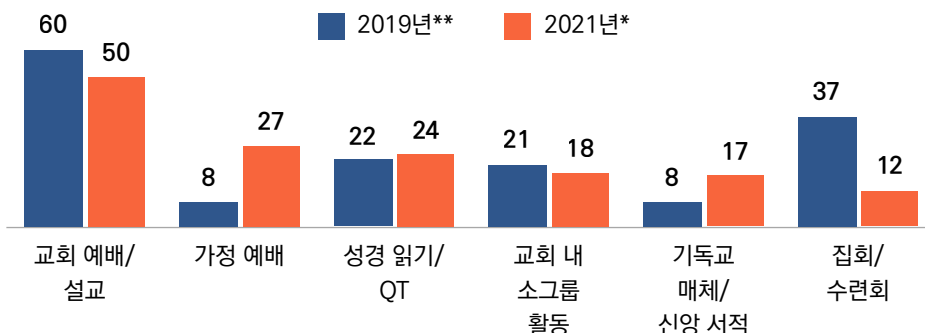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2019년 자료 : 한국교회탐구센터/21세기교회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2.06.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10.10-19)

● 코로나19 이후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 중요성 높아져!

- 코로나19 이후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교회예배/설교'가 50%로 1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예배' 27%, '성경읽기/QT' 24%, '교회 내 소그룹 활동'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집회 수련회'가 37%에서 12%로 크게 하락한 반면, '가정예배'는 8%에서 27%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 가정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라 하겠다.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것(2019년 VS 2021년, 상위 6위, 1+2위)***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2019년 자료 : 한국교회탐구센터/21세기교회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2.06.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10.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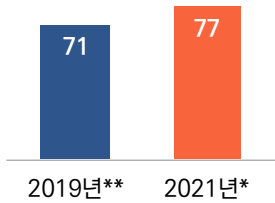
***2021년 조사 시는 '코로나19 이후 신앙 성장에 도움 받은 것'으로 질문하였음

●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 '필요하다'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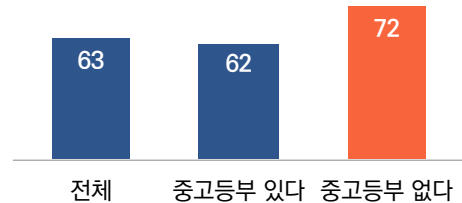
- 부모 중 한 명 이상 개신교인인 학생을 대상으로 평소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느냐고 질문한 결과 77%의 학생이 받고 있었는데, 이는 2019년 71%보다 6%p 높은 수치이다.
- 출석 교회의 중고등부 존재 여부에 따라 이 응답이 달라지는데, 중고등부가 있는 경우 62%, 없는 경우 72%로,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 학생에게서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 필요성 니즈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중고등부가 없는 소형 교회의 경우 부모의 신앙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평소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 받는 정도
(부모 중 한 명 이상 개신교인인 학생)(%)

'평소 신앙 교육 받고 있다'



[그림]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 '필요하다'
(부모 중 한 명 이상 개신교인인 학생)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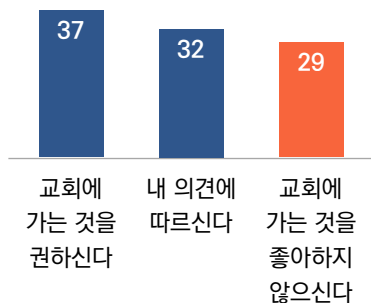
** 2019년 자료 : 한국교회탐구센터/21세기교회연구소,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2.06. (전국 교회출석 크리스천 중고생 500명, 온라인조사, 2019.10.10.~19)

*** 주) 중고등부 있다 62%, 없다 72%인데 전체 평균이 63%로 '있다' 응답에 치우친 것은 중고등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없다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데서 기인함 ('있다' 응답 학생 383명, '없다' 응답 학생 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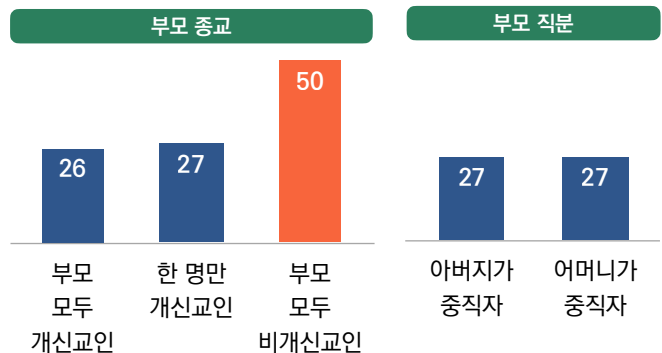
● 부모가 종직자인 경우, '코로나19로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27%

- 코로나19 이후 교회 출석에 대해 부모님의 의견이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권하신다' 37%, '내 의견에 따르신다' 32%,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29%로 나타났다.
- 부모가 개신교인인 경우 아버지가 종직자인 경우 27%, 어머니가 종직자인 경우가 27%가 자녀의 교회 출석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교회 출석에 대한 부모 의견 (%)



[그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가는 것을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다' 비율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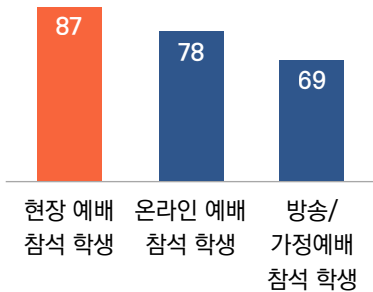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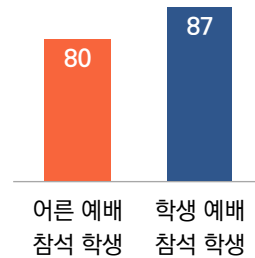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보다 현장 예배 만족도가 더 높아!

- 지난 주일 예배 만족도는 '현장 예배' 87%, '온라인 예배' 78%, '방송/가정예배' 69%로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만족도가 온라인 예배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학생 예배와 어른 예배 참석자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학생 예배' 87%, '어른 예배' 80%로 학생예배 만족도가 어른 예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와 반대의 현상인데, 2019년에는 학생 예배 만족도 51%, 어른 예배 만족도 60%로 어른 예배가 더 높았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청소년에 특화된 학생 예배(온라인 포함)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지난주 참석 예배 만족도**
(현장 예배 vs 온라인 예배 vs 방송 예배) (%)



[그림] 지난주 참석 예배 만족도**
(어른 예배 vs 학생 예배)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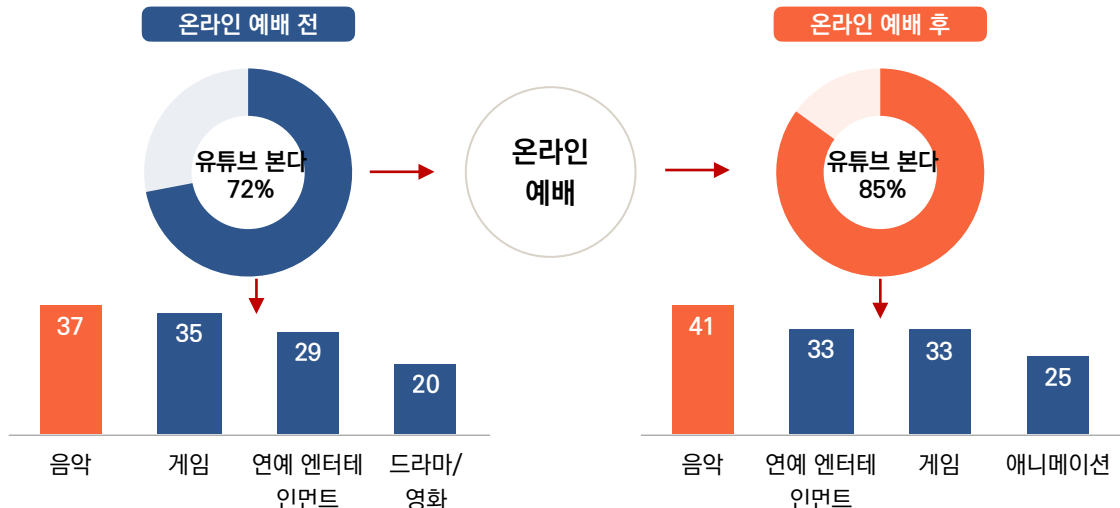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만족 비율임

***2019년 조사는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4점 척도로 질문한 2021년 결과값보다 전체적으로 만족도 절대 수치가 낮아짐에 유의할 것

● 온라인 예배 드린 청소년, 예배 전후 대부분이 유튜브 속에 빠져 있다!

- 온라인 예배를 드린 학생들에게 예배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질문했는데, 예배 전 72%, 예배 후 85%가 유튜브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 예배 전후 대부분의 청소년이 유튜브 속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배 전과 후 시청 콘텐츠를 살펴보면, 동일하게 음악, 게임, 연예/엔터테인먼트 순으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배 후의 이용 콘텐츠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림] 온라인 예배 전후 행동(온라인 예배 드린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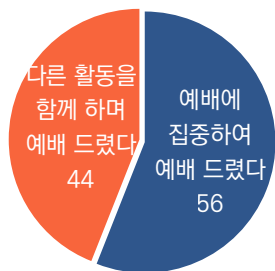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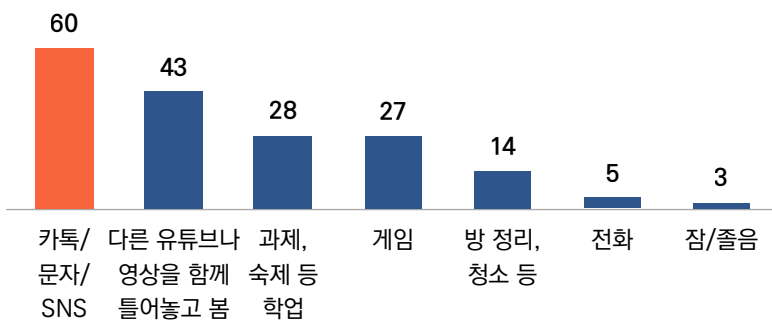
● 온라인 예배 중 ‘다른 일 병행하면서 예배 드렸다’ 44%

- 청소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집중할까. 이에 대해 ‘집중하여 예배 드렸다’ 56%, ‘다른 활동을 함께 하며 예배 드렸다’ 44%로, 무려 44%가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배 드리면서 병행한 일은 ‘카톡/문자/SNS’가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른 유튜브나 영상을 함께 틀어놓고 봤다’ 43%, ‘과제/숙제 등 학업’ 28%, ‘게임’ 27% 등의 순이었다.

[그림] 온라인 예배 집중 정도 (%)
(온라인 예배 드린 학생)



[그림]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한 일(다른 활동 병행 학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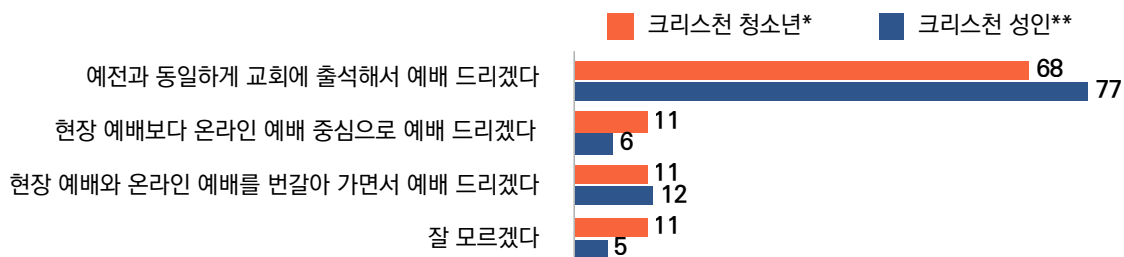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교회 출석 청소년 1/3 정도, 코로나19 종식 후 온라인 예배로 돌아설 가능성 보여!

- 코로나19 종식 후 주일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은지 질문했는데,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예배 드리겠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 반면, 교회 출석 청소년 중 3명 중 1명가량(32%)은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거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드리거나 또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 교회 출석 청소년의 1/3 정도는 코로나 종식 후 온라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엿보인다.
- 성인과 비교하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예전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하겠다’는 의견이 9%p 낮게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종식 후 희망하는 주일예배 참여 유형(교회 출석 청소년 기준)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크리스천 성인 : 예장통합교단,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결과 발표', 2021.01.18. (전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1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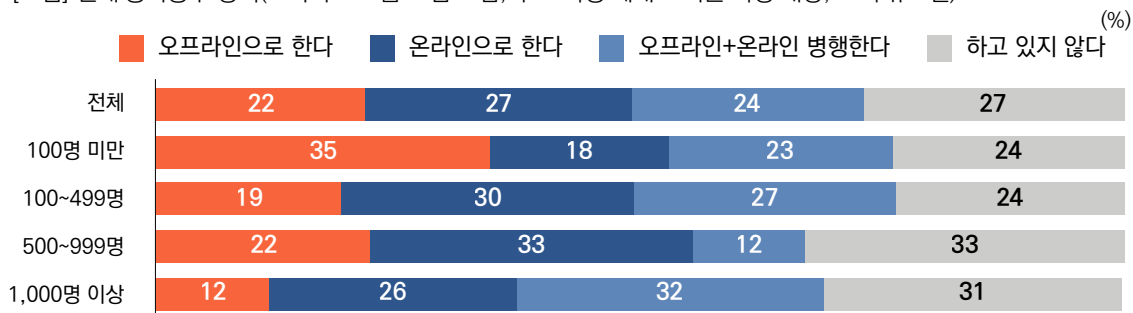
3



중고등부 활동 학생의 절반(51%)가량, '온라인 공과 공부한다'

- 현재 중고등부 예배를 주로 드리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과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오프라인 공부' 22%, '온라인 공부' 27%, '병행' 24%, '하고 있지 않다' 27%로 중고등부 예배 참여 학생의 절반 정도(51%)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교회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명 미만 소형 교회 학생은 '오프라인 공부', 1,000명 이상 대형 교회 학생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공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 교인수 500명을 기준으로 그 이하 교회 학생이 그 이상 교회 학생보다 공과공부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 현재 공과공부 방식(교사와 소그룹 모임 포함, 주로 학생 예배 드리는 학생 대상, 교회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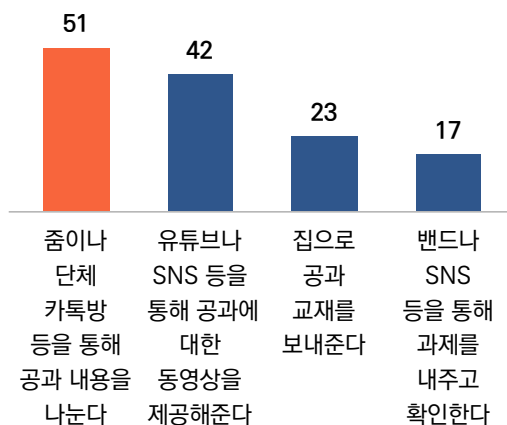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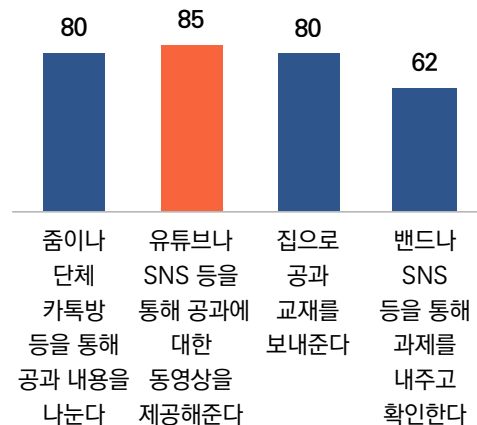
● 온라인 공과공부, 'Zoom이나 단톡방을 통해 나눈다' 51%

- 온라인으로 공과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는데(중복), 그 결과 'Zoom이나 단톡방을 통해 공과내용을 나눈다' 51%, '동영상 제공' 42%, '집으로 공과 교재 보내줌' 23% 등의 순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과 내용을 나누는 방식이 가장 높았다.
- 온라인 공과공부 관련 교회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 제공되는 교재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과제 수행을 위한 피드백 만족도는 낮았다.

[그림] 교회에서 온라인 공과 공부 위해 제공하는 것(중복) (%)



[그림]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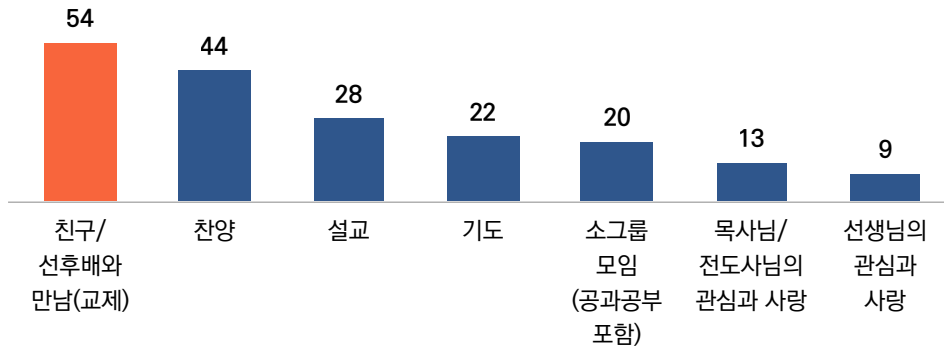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만족 비율임

● 중고등부에 대해 기대하는 것, ‘친구/선후배와 교제하게 해주세요!’

-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친구/선후배와의 만남/교제’가 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찬양 44%, 설교 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1+2순위,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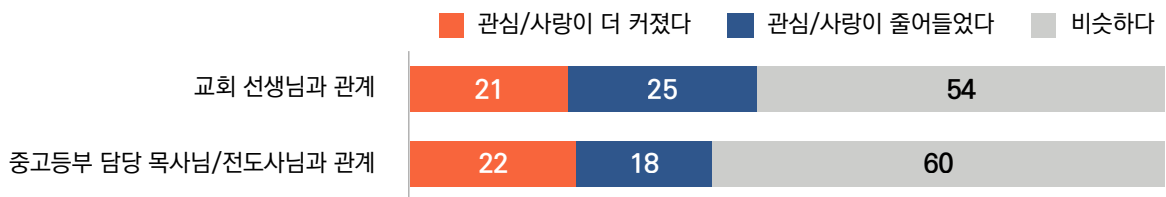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 교사의 관심/사랑은 줄고, 목사/전도사의 관심/사랑은 늘었다!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교회 목사님/전도사님과 교사의 본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어떻게 변했는지 질문한 결과, 목사님/전도사님의 관심과 사랑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응답이 더 줄어들었다는 응답보다 높았던 반면, 교회 교사의 경우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고등부 사역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교사와의 관계성이 이전보다 다소 약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전후의 교회 목사/전도사/교사의 관심/사랑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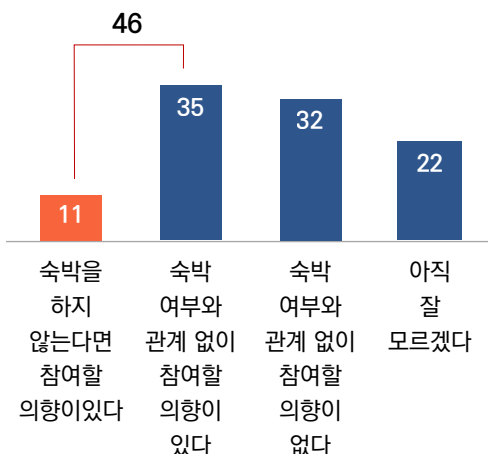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만족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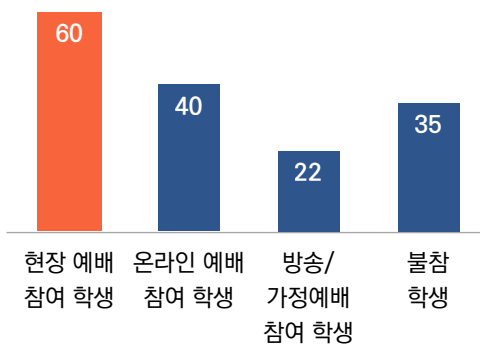
● 올해 여름수련회, ‘참여하겠다’ 46%

- 올해 여름수련회 참여 의향을 묻은 결과, 숙박을 하지 않는다면 ‘참여할 의향 있다’ 11%, ‘숙박 여부와 관계 없이 참여할 의향 있다’ 35%, ‘참여 의향 없다’ 32%로 참여 의향을 밝힌 학생이 46%로 절반 가까이 됐다.
-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학생은 현장 예배 참여 학생 그룹에서 60%로 다른 그룹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그림] 올해 여름수련회 참여 의향 (%)



[그림] 올해 여름수련회 참여 의향을 (지난주 참여 예배별)** (%)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숙박 여부와 관계 없이 참여하겠다 + 숙박하지 않으면 참여하겠다' 비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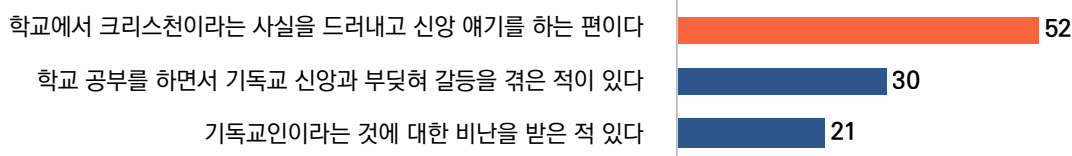


크리스천 청소년

‘학교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52%

- 학교에서 신앙 관련 경험을 몇 가지 질문했는데, 5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비난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절반가량 정도만이 학교에서 드러내놓고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신앙 관련 경험(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정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4점 척도 질문임

5



크리스천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27%),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다’

- 슬픔/짜증, 피곤함, 자살, 희망, 학업 흥미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요즘 생활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부정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큰 순서는 ‘학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 46%,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45%,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30%,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27%,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 24% 등으로 나타났다.
-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부정적 인식이 더 강했다.

[그림] 요즘 일상생활 평가(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자료 출처 : 안산제일교회/한국교회연구원(예장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2021.06.17.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23)

** 4점 척도 질문임



시사점

거의 모든 주일학교는 예배와 공과공부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뒤이어 공과공부를 반별로 나눠서 한다. 그런데 현장 교육자들은 체감하겠지만 예배와 공과공부 모두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요즘 교회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듯이 교회에서도 집중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교회를 데리고 가고, 부모님 재촉 때문에 교회를 가지만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있고 영혼은 가출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과 공부에 있다. 대개의 경우 교회는 교회 공간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공과공부를 할 때 학교처럼 반별로 분리된 공간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예배실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공과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그러다 보니 다른 반의 대화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서 혼란스럽고, 시야는 트여져서 자기 반 공과공부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과공부 방식도 공간 여건 상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렵고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말로 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하는데, 몇 십년 전과 다름없는 풍경이다. 각 교단이나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는 이러저러한 연구를 통해 좋은 교재를 펴내지만 교회 여건상 그러한 교재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과공부 시간도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너무 짧다. 예배 끝나고 어수선한 가운데 다 모이고 하면 실제 공과공부를 하는데는 20-30분 정도의 시간 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 짧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신앙적, 인격적 변화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니 최소한 성경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성이 중요한데,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친밀해지기 어렵다. 필자의 어린 시절, 그 때는 학생들이 교회 선생님 집에도 놀러가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관계를 찾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일주일에 30분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더욱이 요즘 교사들과 학생들은 주중에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지도 않는다.

이번 [넘버스]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쪽). 학생들의 공과공부에 대한 기대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7쪽).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의 관심과 사랑은 줄었다고 한다(5쪽). 이 결과들을 보면 교사들은 마음이 불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교사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시간과 열심을 내어 봉사하는 교사들을 탓할 수는 없다.

교회학교 문제는 교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공과공부를 비롯한 교회학교 교육 체제를 근본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 문제부터 생각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지금과 같은 예배와 공과공부로 이루어지는 교회학교 시스템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난 주에 언급한 것처럼 '교회-가정-학생'의 네트워크 속에서 가정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의 경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6쪽) 온라인 예배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능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고민하고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지만, 지금은 그에 걸맞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 45%
2. 한국,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 시간 긴 나라!
3. 미국 목회자, 목사 성 범죄 시 '목회직 영구 정지' 해야 한다 74%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맞벌이 가구 실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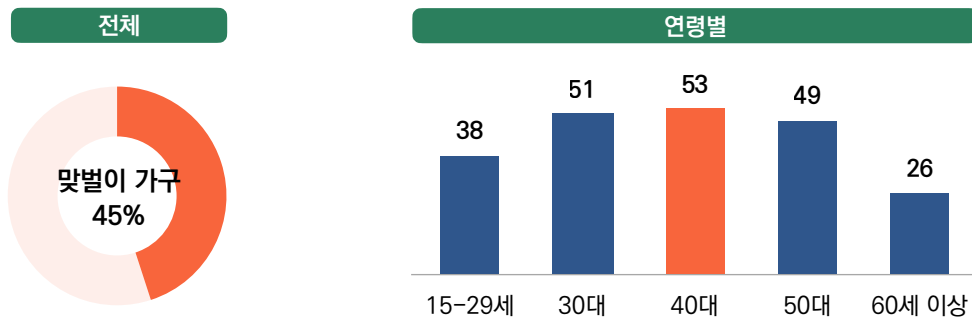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 45%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5%로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가량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맞벌이 비율을 보면, '40대'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고령 층에서도 맞벌이 비율이 26%나 되었다.

[그림] 맞벌이 가구 비율 (2020년, 유배우자 가구 전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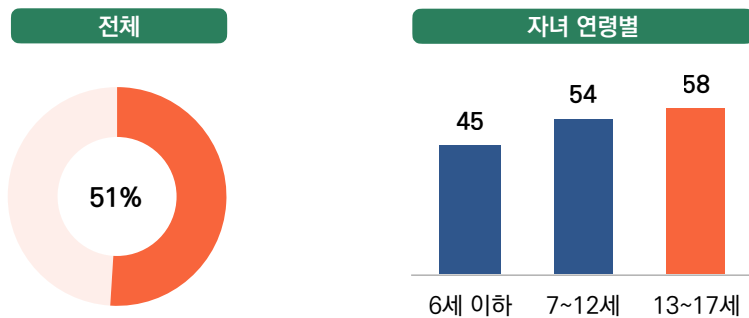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2021.06.22.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비율이 상승함

- 앞에서 유배우 가구 기준의 맞벌이 비율이 45%인데 반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51%로 전체보다 6%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2020년)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2021.06.22.

2. 한국인의 근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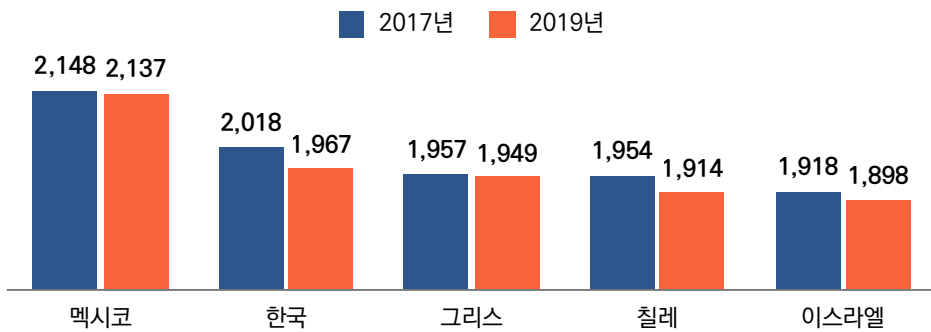
1



한국,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 시간이 긴 나라!

- 올 7월 1일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한 후 2019년 연 평균 근로 시간은 1,967시간으로 2017년에 비해 51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2019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여전히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나라이다.

[그림] OECD 연 평균 근로 시간 상위 5개국 현황(2017 vs 2019)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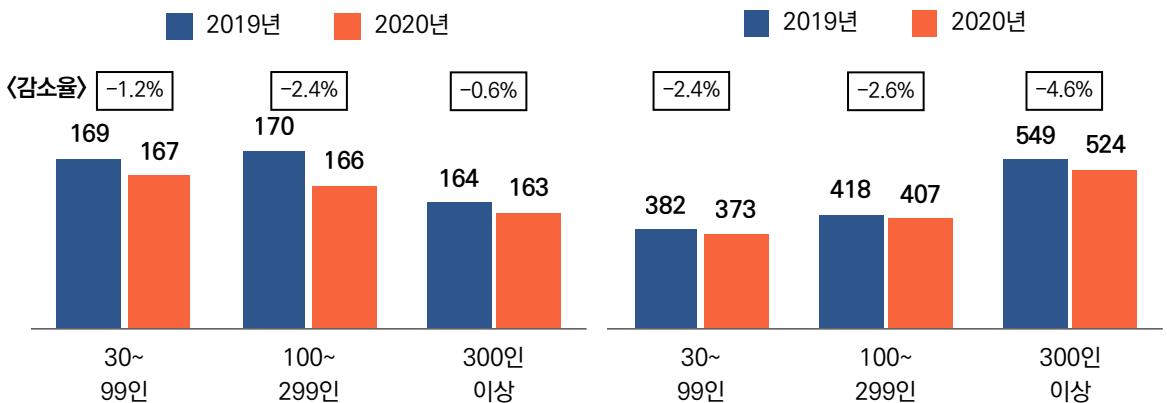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일보, 2021.06.28., '저녁 있는 삶 내달 완성... 돈 없는 저녁 마지막 퍼즐은 남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309220002966>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 : 2018년 7월 1일 사업장 규모 300명 이상, 2020년 1월 1일 50인 이상, 2021년 7월 1일 5인 이상

● 2020년 코로나 기간 중, 근로 시간 감소율보다 임금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

- 주당 근로 시간을 코로나 이전(2019년)과 이후(2020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근무 시간과 임금이 감소했는데, 근무 시간 감소율보다는 임금 감소율이 더 큰 컸다.
-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은 적고 임금은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림]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근로 시간 (2020년, 고용노동부)

[그림] 사업장 규모별 월평균 임금 (2020년, 고용노동부)



*자료 출처 : 한국일보, 2021.06.28., '저녁 있는 삶 내달 완성... 돈 없는 저녁 마지막 퍼즐은 남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309220002966>
 **본 자료는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기업은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

3. 미국 목회자 조사, 목사 성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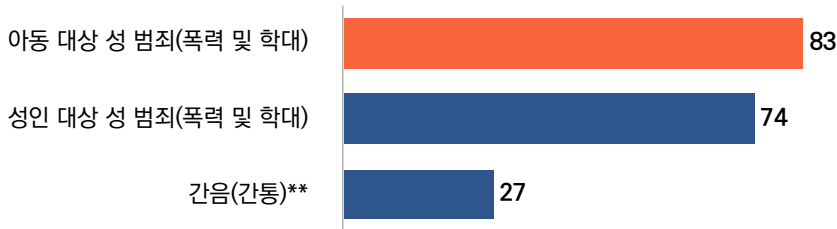
1



미국 목회자, 목사 성 범죄 시 ‘목회직 영구 정지’ 해야 한다 74%

- 목사의 성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 왔는데, 이와 관련 미국 목회자 대상 조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 미국의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미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사의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성인 대상의 성범죄(성폭력과 성적 학대) 목사에 대해서는 공적 목회 사역을 ‘영구 정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7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 대상 성 범죄는 성인 대상 성 범죄보다 높은 83%로 응답했다.
- 하지만 목사가 간음 또는 간통과 같은 성 관련 비도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 정지’ 의견이 27%로 위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그림] 목회자 성 관련 문제에 대한 ‘목회직의 영구 정지’ 인식(미국 목회자 대상) (%)



*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2021. 6. 22 'Most Pastors Say Sexually Abusive Ministers Should Step Down Permanently'
<https://lifewayresearch.com/2021/06/22/most-pastors-say-sexually-abusive-ministers-should-step-down-permanently/>
 (미국 개신교 목사 1,007명, 온라인과 전화 조사, 2020.9.2.-10.1)

**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2020.8.11., 'Pastors Split Over Ministry Return Time Frame for Pastors Who Commit Adultery'
<https://lifewayresearch.com/2020/08/11/pastors-split-over-ministry-return-time-frame-for-pastors-who-commit-adultery/>
 (미국 개신교 목사 1,00명, 전화조사, 2019.8.30.- 9.24)

***성 범죄로 번역한 Sexual assault, abuse는 '성 폭력' 또는 '성 학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하는 성 관계, 성 접촉을 의미함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54호\(2021년 7월 1주\)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내년 대선 결과 기대](#)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35호 \(2021년 6월 5주\)- 대선후보지지도/강도, 최저임금 인상 의견](#)

일반
사회
문화

["집에 있어도 눈치, 나가도 눈치"...'황혼 이혼' 원하는 남성 늘었다](#)

매일경제_2021.06.27.

[여가부, 최근 2주간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2만여 건 적발](#)

연합뉴스_2021.06.29.

[병역, 국민의 의무 83% 동의하지만... 66%는 국가가 희생 요구](#)

한국일보_2021.07.01.

[혼돈의 코인 속 주식 '빛투' 역대 최대](#)

동아일보_2021.06.12.

["서울시민 체감경기, 코로나 발생 전 수준으로 회복"](#)

연합뉴스_2021.06.28.

[빌보드 5주 연속 1위 '버터', 뮤직비디오 4억뷰도 달성](#)

연합뉴스_2021.06.29.

[콘텐츠 공룡 몰려온다... 'K콘텐츠' 전초기지 세워라](#)

서울신문_2021.06.27.

[한국인은 왜 못잘까?](#)

한겨레신문_2021.06.26.

경제

["비정규직 10명중 3명 '코로나 실직' 경험...정규직 5배"](#)

연합뉴스_2021.06.27.

[한국은 24시간 '배달 중'... '더 빠르게' 속도 경쟁도 치열](#)

동아일보_2021.06.29.

[전국 상위 20% 집값 11억원 돌파...'부익부 빈익빈' 심화](#)

연합뉴스_2021.06.29.

[올해 강남서 평당 1억원대 넘는 아파트 단지 '우후죽순'](#)

뉴스1_2021.07.01.

교
역

["체벌이 오히려 아이 망친다"...9개국 연구 분석 결과](#)

연합뉴스_2021.06.29.

["코로나 이후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 사교육비 부담 늘어"](#)

연합뉴스_2021.06.29.

국
제

["한국 기업가정신지수 OECD 국가중 27위...리투아니아보다 낮아"](#)

연합뉴스_2021.07.01.

["국민연금 이대로면 반란 일어난다" 차기 연금학회장의 경고](#)

연합뉴스_2021.06.30.

[세계 경제 전문가 100인이 꼽은 글로벌 최대 위기는?](#)

그린피스코리아_2021.06.24.

트
렌
드

["이번 역은 퇴사입니다, 내리실 곳은 꽃길입니다!"](#)

조선일보_2021.06.26.

[달고 살던 장염·두통이 멎더라, 나이 마흔에 '굿바이 회사'](#)

한겨레신문_2021.06.26.

이슈 큐레이션

[30년 뒤엔 초고층 아파트 슬럼화될 수도](#)

중앙일보_2021.06.28.

넘버즈 칼럼

줌(Zoom)심방의 기적

조준환 목사(올리브교회)

작년 2월 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나는 미국에 있었다. 주일예배에 성도들이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교회는 폭탄이 떨어진 분위기였다.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도 성도들 대부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제직들에게 비상 기도를 선포했다. 여름 동안 줌 수그러지는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는 9월에 들어서며 다시 기승을 부렸고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연말까지 근근히 버텼다.

올해 초 매번 큰 은혜가 됐던 신년 특별새벽예배를 못드리게 되었고, 지쳐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그 동안 확신이 없어 하지 못했던 줌 심방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루에 다섯 가정 씩 일주일에 이틀을 만났다. 기대했던 것 보다 성도들의 참여가 좋았다. 잠깐 인사하고 찬양 한 곡, 신앙 고백, 성경 구절 하나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 20분 정도의 시간이었다. 부담 없는 길이의 시간에 음식이나 청소 등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심지어는 심방만 하면 도망다니던 남편까지도 줌 앞으로 끌어들었다. 네 달 가까이 심방은 진행되었고 그 어느 해의 대 심방보다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금은 심방의 분위기를 살려 구역모임을 줌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구역을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되었던 것이 놀랍게도 코로나 기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줌 심방에서 소망을 본 우리 교회는 다른 사역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선교지와 줌을 통해 교제를 시작했다. 우리교회가 세운 우즈베크와 몽골 교회 성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찬양 잠깐하고 30분 말씀, 그리고 교제를 나눈다. 처음에 20분 정도였던 교제의 시간이 지난 달에는 거의 두 시간이나 되었다. 선교지 영혼들에게서 속에 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도가 뜨거워졌다. 온라인을 통해 이런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예전엔 일 년에 한번 방문하여 잠깐 얼굴을 보고 오던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코로나가 끝나고 방문하게 될 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만남이 될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든다.

줌을 통한 사역 중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 바로 유학생 관리다. 요즘은 중고등학교 때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아이들이 많다. 이들을 줌으로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눈다. 작은 인원과 또 그들의 사정에 맞는 말씀과 기도로 인해 한국에 있을 때 보다는 더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그 시간이면 핸드폰 앞에 앉는다. 떨어져 있으니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 큰 갈급함을 느끼는 것 같다.

코로나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태에 당황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둠 가운데서 이제는 소망을 보고 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많은 사역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 마치 사역의 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그런 느낌이다. 꼭 지출해야 할 것만 지출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 힘든 선교지 교회들과 또 주변 개척 교회들과 물질을 나누고 있다. 놀랍게도 그 어느 해보다 재정의 풍성함의 이적을 경험하고 있다. 오병이어의 원리가 이런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라인을 통한 사역의 소망을 보았고 이렇게 시작된 온라인 사역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었을 때에는 애굽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러나 7년 흉년 기간에는 오직 요셉만이 복을 받았다. 흉년의 축복!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축복의 원리임을 믿는다. 코로나라는 흉년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예향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진주삼일교회, 지구촌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외봉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송으뜸,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호,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이주일, 이창준, 이춘봉, 이현구,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용림,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용기, 최은아,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자 | 현재 2주년 기념 후원자 이벤트 중입니다. 그 기간 동안 후원해 주신 분들은 이벤트 후 취합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